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병상 운영

전북도, 중증환자 우선 입원치료 · 무증상 ·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해 치료

전북도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우선 입원치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을 활용해 경증환자를 관리하고 각 시군과 함께 적합한 시설을 확보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정부가 밝힌 치료체계 개편 방향에 맞게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무증상·경증 환자는 입원치료 또는 신속한 의료지원이 가능한 시설(생활

치료센터)에서 생활 및 치료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인 환자 증가세에 따른 병상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증환자는 공공시설 등에 마련되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받게 하는 내용의 치료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병상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입원치

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상이 배정되어야 하므로 모든 환자를 입원치료할 것이 아니라 경증환자는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격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무증상 확진자는 별도 시설에서 격리 및 증상 약화에 대비하는 시설을 뜻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기존 계획대로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을 우선 활용하며, 시군과 함께 생활치료센터로 적합한 시설을 확보해 운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의 불편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한국발 방문객 입국 제한 국가·지역 80곳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이 8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10분을 기준으로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은 8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 81곳에서 한 곳이 줄어든 것으로 앙골라를 입국 금지국과 입국 제한국에 중복 집계했다가 정정한 데 따른 결과다.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는 유엔 회원국(193개국)을 기준으로 41%에 달한다. 지난날 23일 13곳에 불과했던 입국 제한 조치는 일주일 만에 6배 가량 급증했다. 다만 주말 사이에 입국 제한국 급증세는 다소 주춤해졌다.

현재 입국 전 14일 이내에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와 지역은 모두 36곳이다. /뉴시스



1인실 내부 살펴보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 동구 신서동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을 방문해 1인실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미리 마련해달라... 민간 도움 절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체계 전환...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서 격리 치료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 전환을 위해 각 지자체가 경증환자 격리 시설인 생활치료센터를 미리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회의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중증환자는 병원에 입원

해 집중 치료받고, 경증환자는 안전하게 격리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며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다.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확진자 1600여명이 하루 속히 최적의 의료서비스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확진자들이 건강 상태에 적합한 의료기관이나 센터로 신속하게 배정돼 이송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해달라"며 "한 번도 겪지 못한 치료체계

변화인 만큼 어려움도 있겠지만, 중앙·지방·민간이 합심해 최선의 모델을 새롭게 만들자"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의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이 경북대병원 의료 지원을 받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다른 지자체도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해 충분한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미리 선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은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해 각 지자체가 적절한 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관

계부처는 시설 확보와 운영, 환자 이송, 의료지원, 질서유지 등 필요한 기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탄탄하게 뒷받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가 전국 각지에 마련된다면 공공시설만으론 부족하다"며 "민간의 도움이 절실하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 생각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1일 '감염원 봉쇄'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방역 대응 체계를 전환하기로 선언하고, 2일부터 중증도 이상 환자만 입원 치료하기로 했다.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한다.

/뉴시스

에듀과인 의무 시행 교육 부조리 근절 기대

200인 미만 사립유치원도 이달부터 의무 사용

법정부 반부패 정책협의체인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유치원생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립유치원이 3월부터 정부 회계 관리 시스템인 에듀과인 의무 사용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교육 부조리 근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진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 중점 과제인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과인 사용 의무화는 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입법화 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

립학교법·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1월29일 개정·시행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표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과인 사용 의무를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과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고,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번 달부터 전면 도입된다.

오는 7월말 시행에 들어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

정부,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3월 초미세먼지 농도 가장 높은 달... 계절관리제 강화 대책 시행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인 3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정지를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화된 대책을 시행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8~15기에서 21~28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을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 배출 감시도 강화한다. 대형사업장 경우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 약품 투입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한다.

또 사업장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민간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000명까지 확대하고, 광학가스카메라도 3대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지난달 25일 실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임시 중단 조치는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 5등급차 운행 제한 제도를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뉴시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 저속운항프로그램은 기존 일반 화물선에서 자동차 운반선 등 특수선박까지 확대한다.

3월을 농촌 불법 소각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도 실시한다.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교실에 공기정화 설치를 완료하고, 도로·철도대합실·공향터미널 등 청소도 강화한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 심뇌혈관 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자 등 민감군별 맞춤형 상세 건강수칙도 배포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최근 3개월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도 대비 16%가량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5μg/m³(약 16%) 감소했다. '좋은' 일수는 10일 증가해 총 20일, '나쁜' 일수는 3일 감소한 21일로 나타났다. '고농도' 일수는 11일에서 2일로 감소했다. 정부는 강수량, 풍향 등 기상 여건과 계절관리제 시행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미세먼지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환 영
	우 석 대 학 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 긴장해소 · 웃음치료(힐링) · 면접		
<p>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각 평생교육원에서 즐겼던 주, 야간반으로 학습합니다.</p>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전주매일 부사장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2020학년도 1학기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주,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주,야간)	군산, 부안, 서원
전북과학대학교	스피치 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정읍, 고창
원광보건대학교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익산, 완주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p>상담전화 (전제)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합니다.</p>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